

# 대구 경북 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신영희\*, 홍영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에이즈에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에이즈 감염국의 일원이 되어 지난 1985년에 처음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1995년 9월 현재 4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64명이 사망하였다(국립보건연구원, 1995). WHO의 추정대로 실제 감염자 수는 보고된 수의 5-10배로 잡는다면 국내 감염자는 몇 천명에 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유행할 초기에는 한국 주재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접대하는 접대부, 동성연애자 및 수혈에 의한 감염이었으나, 1991년 이후부터는 내국인끼리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주인호, 1995). 한편 태국의 경우 1987년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200명 미만으로 보고되었으나 감염원이 외국 관광객에서 내국인으로 토착화되면서 현재 에이즈 감염자가 약 100만 명으로 급증되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주인호, 1995).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들에서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전파된 이유는 이들 정부의 보건정책의 태만과 대중의 무지였던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실패는 오로지 성병-에이즈-예방홍보교육의 실패에 불과하다고 보면 조그마한 정보의 부족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국에 모니터망을 확립하고, 국립보건원의 HIV 검사 기능의 보강, 지정치료 병원 및 전

담 진료팀을 구성하고 국내 및 외국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에이즈 항체 검사 등의 방안을 세워 에이즈 전파에 대비(대한의협, 1987)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왔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법이나 백신 개발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예방 홍보사업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어떤 예방 대책이든 그 성공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려있다. 미국 과학 학술원과 대통령의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의 18-39%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과도의 공포의식 또는 혐오의식을 나타내었다고 한다(Blendon & Donelan, 1988). 올바른 지식의 보급은 편견을 시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과 세계의 에이즈 예방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대중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본 연구자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신과홍, 간행중),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았으며 에이즈 전파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앞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재확인(validation) 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 조사를 시도하였다. 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연구자들의 앞의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피하고 또한 다른 지역 대학생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춘해간호전문대학 조교수

들의 지식 정도와 태도를 알아 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지식 정도와 태도를 가늠해 보고자 함이다. 물론 연구자들은 추후에 일반인이나 고위험 집단 등 대상을 달리하여 반복 조사할 예정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3. 연구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설계가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tudy design)인 점과 연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서 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 대학생만 표출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이 결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 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II. 문헌고찰

WHO(1995)는 1994년 말 현재 전세계 HIV 감염자를 약 1,8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기에는 미국과 유럽에 HIV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와서는 동남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

에이즈가 무서운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전염병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전염병들은 증세가 뚜렷하여 감염자와 미감염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치료도 비교적 쉬웠으며, 결과도 단시일에 결정되었다(Chin, 1993). 그러나 에이즈는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나마 초기 자각 증상들은 흔히 겪는 감기, 설사, 빈혈, 관절염, 임파선염, 체중감소 등에 불과하며, 비병원성 세균 또는 진균 감염이 반복하기 시작하여 환자나 의사가 의문을 가지게 될 단계까지는 확진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자각과 의사의 확진이 서는 시기까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다. 더구나 세계 각국들은 에이즈 치료법 개발과 전파 방지에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에이즈 치료나 백신 개발은 실용화 단

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에이즈 만연을 저지 시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에이즈로 인하여 유용한 노동력 상실과 가정을 지켜나갈 모성의 상실은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류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Carswell, 1988; Chin, 1993; Merson, 1993; Piot & Carael, 1988; WHO, 1993).

최근에는 이성간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2년 1월 통계에 의하면 HIV감염자의 71%가 이성간의 성관계로 인한 것으로 이와 더불어 여성감염자가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15%가 동성연애, 그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 정맥을 통한 약물사용으로 인한 감염이었다(Ehrhardt, 1992). 우리나라도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68.9%이고, 동성끼리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19.0%, 수혈 및 오염된 혈액제제의 사용으로 인한 감염은 7.8% 뿐이다(국립보건원, 1995).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에이즈는 하나의 성병에 불과하므로 건전한 성생활과 콘돔 사용 및 에이즈 예방홍보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방역대책국은 1994년부터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정식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각 주와 도시의 보건과에 지시하고 에이즈 전문가를 보내어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Holtgrave, et al, 1995). 또한 미국의 각 중·고등학교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1989년에는 전체 학생 인구의 54%에게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1991년에는 83%에게 교육이 실시되었다. Walter와 Vaughan (1993)은 도시 고등학교 재학생 477명에게 수업시간을 통해 6회에 걸쳐 에이즈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 뒤 3개월 뒤에 이 교육을 받은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과 지식을 비교해 본 결과 교육을 받은 집단이 교육을 안 받은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교육의 결과로 이미 성관계를 가지던 중·고등 학생이 59%에서 54%로 감소되었으며, 2명 이상과 성 관계를 가지던 학생이 1989년에는 40%이었으나 1991년에는 35%로 감소하였고, 또한 4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진 사람은 1989년에 24%에서 1991년에 19%로 감소하였다(Holtzman et al, 1991). 대중매체나 홍보교육자료의 배포 역시 대중들에게 에이즈에 관한 기본 상식을 제공하였다. 미국에서 전국 규모로 확률 표본에 의한 전화 면담 조사에 의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인들이 에이즈 전파 방법에 대한 지식이 크게 향상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Auguilar, 1993; Schoenborn, Marsh, & Hardy, 1994).

에이즈 문제를 먼저 경험한 미국사회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일반대중 및 보건 의료인들의 태도에 대한 많은 조사 연구들이 있다 (Blendon & Donelan, 1988; Dear & Moore, 1994; McNicole et al, 1991; Schwarz, 1989). Gee (1993)의 종설에 의하면 평균 80%이상의 간호사나 간호대학생들이 에이즈의 감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적어도 50%-70%의 간호사들이 에이즈 감염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간호사들이 에이즈 환자 간호를 싫어하고 피할 수 있으면 에이즈 환자 간호는 하고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이성적으로 안전하고도 인간성있는 간호를 할수 있도록 정확한 직업교육과 윤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지식부족과 함께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과 도덕적 비난 및 무관심은 에이즈 예방 사업의 저해 요인이 된다 하겠다.

한국에서는 간호대학생, 간호사,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가임여성 그리고 접대부들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김명남, 1995; 김영희, 1990; 동방승희, 1988; 부산시, 1996; 신영희와 홍영혜, 1995, 간행중; 이영나, 1990; 장순복, 1994; 전춘영외, 1988; 황인선, 1992)이 있으나, 그 수는 아직 적다. 김영희 (1990)는 경기지역 간호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지식정도가 20점만점에 평균평점 14.4로 낮은 편이었으며, 에이즈 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과 접촉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황인선 (1992)은 4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보건 교육을 통한 에이즈 지식과 태도변화를 보는 연구에서 교육이 지식은 변화시켰으나 태도는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육후 지식과 태도와의 높아진 상관관계를 통해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장순복 (1994)은 서울지역 17세에서 50세의 가임여성 1,152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지식정도는 22점 만점에 14.7점으로 앞서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환자격리나 감염공개에 대해서 본인과 타인의 경우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가임여성들

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의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지식정도가 낮았고 태도도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년대 미국, 유럽의 에이즈 역학조사에서 주요 확대 전파 원인들을 찾았다면 (1) 생활습관 (동성애와 마약 사용)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과 (2) 보건홍보 교육이 지연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시작한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적 에이즈 역학조사 (pandemic)에서는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 및 보건홍보 교육의 결여에 그 주 원인을 들리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유효한 치료제도 없는 전염병에 대한 전략은 보건홍보교육에 의한 예방이외에는 없다. 국제화 시대에 들어와 한국만이 에이즈 안전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므로 에이즈 홍보교육에 큰 관심과 투자를 아끼서는 안될 것으로 믿는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및 대상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3개 종합대학교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99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3개 대학에서 이루어졌는데 2개 대학은 경북지역이고, 1개 대학은 대구 지역이며 연구자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에서 연구자의 강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자료수집하기 2주 전에 2개 대학의 친분 있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수집 허락을 받은 후 학생들에게 예고를 부탁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당일 담당교수의 양해 아래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전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180부를 배부하고 이중 167부를 회수하여 9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부적절한 자료는 없었다.

#### 2. 연구도구

이미 신영희와 홍영혜(간행중)가 개발하였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총 35문항으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에이즈에 관한 지식

측정 18문항,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개발된 도구를 수정한 이유는 대상자가 일반 대학생이라는 점과 에이즈는 전파 차단과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단이나 증상에 관한 문항들은 제외하고 전파 및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문항들을 보강하였다.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American Red Cross (1992)에서 출간한 에이즈 교육자료와 보건복지부(1995),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에이즈협회 (1995)의 에이즈에 관한 여러 문헌들을 토대로 다양한 예들을 포함시켰다.

에이즈 지식을 알아보는 문항들은 에이즈의 정의 및 진단에 관한 3문항과 에이즈 전파 및 예방에 관한 15문항으로 정답과 오답이 고루 배치되도록 구성되었으며, 정답에 1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관한 지식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에이즈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60으로 나타났다.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개인 및 사회적 편견을 알아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개인적 및 사회적 편견으로 구분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 0점에서 '매우 동의한다'에 4점까지 5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은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에이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63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SPSS/PC 로 전산 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에이즈에 관한 지식과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해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에이즈 지식에 대한 차이검정은 ANOVA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상자들은 2학년에서 4학년까지 남녀 대학생이며 3:1정도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많았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최저 18세에서 최고 40세로 평균 21.7세였다. 응답자 중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이었으며 성

트너는 모두 이성이었다. 이 중 파트너가 두 명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술을 마신다고 하였고 (79.1%),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5.6%이었으며, 신나, 대마초 등의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명이였다.

에이즈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2%로 동일 연구자들이 부산과 울산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신영희, 홍영혜, 간행중) 하였을 때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에이즈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은 87.3%으로 에이즈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TV(40.2%)나 신문 (20.8%)를 통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배웠다고 응답하여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가 에이즈 홍보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병원이나 보건소 혹은 에이즈 홍보 교육자료 등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에이즈 홍보 교육자료는 대학 캠퍼스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배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분 실수	백 분 율(%)
연 령	18~20세	53 31.8
	21~28세	111 66.5
	30세이상	3 1.8
학 년	2학년	76 45.5
	3학년	65 38.9
	4학년	26 15.6
성 별	남	43 25.7
	여	124 74.3
성 경 험	없 다	140 83.8
	있 다	22 13.2
성 파트너	한 명	15 9.0
	두명이상	7 4.2
에 이 즈 교육 경험	있 다	17 10.2
	없 다	150 89.8
에 이 즈 에 관한 정보 입수	대중잡지	2 0.6
	전문서적	13 3.9
	TV	135 40.2
	라디오	25 7.4
	친구나 선배	23 6.8
	강연이나 특강	17 5.0
	신문	70 20.8
	에이즈 홍보교육 자료	32 9.5
	보건소	9 2.7
	병원	10 3.0

\* 무응답자 제외함

## 2.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

에이즈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정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총 18점 만점에 최저 1점, 최고 13점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6.9점이었다. 이는 백점을 만점으로 보았을 때 약 38.3점에 해당하며, 부산 및 울산 지역 대학생들(신영희, 홍영혜, 간행중)의 평균 58.6점보다 훨씬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에이즈가 생체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93.4%). 그러나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35.3%였으며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이나 오히려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남에게 전염”시키는 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38.9%였다. 그리고 에이즈에 노출된 후 언제쯤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였다(56.3%).

에이즈 전파와 예방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바늘이 내 몸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에이즈에 걸린다”라는 문항에 정답을 한 사람은 각각 91%와 99.4%로 높은 정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83.8%였다. 이는 부산과 울산지역 대학생들에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응답자들이 헌혈과 수혈의 의미를 혼동하기보다는 실제로 잘못 알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해 왔는데 이와같은 잘못된 인식은 앞으로 대학생들의 헌혈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시급함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의 에이즈 전파는 동성연애자보다 이성간의 성접촉으로 인한 경우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에 옳게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였으며(61.1%), 39%는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또한 성교시 살정제를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6%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7.5%, 옳게 아는 사람은 32.9% 뿐이었다. 부주의한 성관계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음을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은 앞서 연구자들이(신영희, 홍영혜, 간행중)조사한 부산과 울산 지역 대

학생들보다 잘 모르고 있었다. 에이즈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 때 대학생들의 이와같은 저조한 지식 수준은 매우 걱정스럽다.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이 시급하다 하겠다.

에이즈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에이즈 환자와 음식을 같이 먹거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거나 목욕을 같이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에이즈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나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9.3%였으며 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은 47.3%였다. 물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감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7.4%였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6.2%로 전체 33.6%가 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55.7%이었으며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람도 50.3%에 불과하였다. 임신중에 임부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으면 태아도 감염될 수 있음을 응답자의 85.6%가 알고 있었으나 모유를 통해서 감염됨은 절반정도(50.9%)만 알고 있었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는 전반적으로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신영희 홍영혜(간행중)의 부산과 울산지역 대학생들보다 지식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별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One-way of analysis를 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의한다”, “동의 안한다”, “모르겠다”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각 문항별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5%가 에이즈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에이즈가 메스컴에서 시사하는 것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2.8%였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격리 수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4%인 반면 해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절반인 30.6%로 모순된 응답을 하였다.

표 2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

(N = 167)

		맞 다 n(%)	틀리다 n(%)	모르겠다 n(%)
에이즈 정의 및 진단	에이즈 생체 면역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156(93.4)*	2(1.2)	9(5.4)
	에이즈는 조기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	11(6.6)	108(64.7)*	48(28.7)
	에이즈 감염여부는 노출된지 4주 이내에 알 수 있다	1(6)	73(43.7)*	93(55.7)
에이즈 전파 및 예방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이 나와도 임상적으로 아무 증세가 없으면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는다.	15(9.0)	102(61.1)*	50(29.9)
	에이즈 환자와 같이 음식을 먹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5(3.0)	135(80.8)*	27(16.2)
	성관계시 살정제를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16(9.6)	55(32.9)*	96(57.5)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	102(61.1)*	21(12.6)	44(26.3)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 바늘이 실수로 내 몸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	152(99.4)*	8(4.8)	7(4.2)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았을 때 에이즈에 걸린다.	166(99.4)*	1(6)	-
	헌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140(83.8)	22(13.2)*	5(3.0)
	임신부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도 감염된다.	143(85.6)*	4(2.4)	20(12.0)
	에이즈 환자와 함께 목욕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17(10.2)	110(65.9)*	40(24.0)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쓰던 면도날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	93(55.7)*	38(22.8)	36(21.6)
	에이즈에 감염된 엄마의 젖을 먹는 아기는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85(50.9)*	35(21.0)	47(28.1)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악수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2(1.2)	162(97.0)*	3(1.8)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하던 물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29(17.4)	111(66.5)*	27(16.2)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나에게 기침이나 재치기를 하면 나는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49(29.3)	88(52.7)*	30(18.0)	
모기에 물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43(25.7)	84(50.3)*	40(24.0)	

\* 정답

표 3 응답자들의 에이즈에 대한 태도

(N = 167)

태도	동의한다 n(%)	동의안한다 n(%)	모르겠다 n(%)
에이즈 감염자는 자기병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143(85.6)	16(9.6)	8(4.8)
에이즈 감염자는 격리 수용되어야 한다	107(64.0)	52(31.2)	8(4.8)
에이즈 감염자는 해고되어야 한다	51(30.6)	100(59.9)	16(9.6)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가 메스컴이 시사하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38(22.8)	110(65.8)	19(11.4)
나의 가족이 에이즈에 걸린다면 나는 그를 돌보겠다	134(80.2)	10(6.0)	20(12.0)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친구와 우정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131(78.4)	15(9.0)	21(12.6)
나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135(80.8)	24(14.4)	8(4.8)

\* 무응답자 제외함.

또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태도였는데, 가족이 에이즈에 걸리면 돌보겠다고 한 사람이 80%가 되며, 친구가 에이즈에 걸려도 우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78.4%였다. 본인은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80.8%였다.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대부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반적인 태도는 냉담하였지만 자신과 관련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동정적이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80%는 "자신은 에이즈에 걸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함으로써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로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 V. 논 의

에이즈에 대한 전체 평균 지식 점수는 총 18점 만점에 6.9점으로 매우 낮았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가 여러 선행 연구들(김명남, 1995; 김영희, 1990; 동방승희, 1988; 부산시, 1996; 신영희와 홍영혜, 간행중; 이영나, 1990; 장순복, 1994; 홍영혜, 신영희, 1995)의 결과들처럼 낮은 것은 아직도 에이즈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부족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90% 이상의 높은 정답율을 보인 문항은 4개의 문항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받았을 때 에이즈에 걸린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악수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 "에이즈는 생체 면역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했던 주사바늘이 내 몸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린다" 순이었다. 이는 위의 선행 연구들에서 정답율이 높았던 문항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80% 이상이 옳은 답을 한 문항은 6개 뿐이었으며, 9개 문항은 50.3%-66.5%의 저조한 정답율을 보였고 3개의 문항은 13.2%-43.7% 만이 정답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강조되던 일부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도는 높으나 에이즈의 진단이나 일부 일상 생활과 관련된 전과 경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전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이 주사바늘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91%), 면도날을 같이 사용할 때의 감염가능성에 대해서는 55.7%만이 알고 있었다. 이는 장순복(1994)의 연구에서 동성관계자가 에이즈 감염의 위험군임을 87.0%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54.8%만이 알고 있어 동성관계자가 에이즈 감염의 위험군이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주사 바늘에 찔리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있음을 시사한

다.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도 상반된 지식 정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원리적인 지식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다고 99.4%가 정답을 표했는데 83.8%는 헌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답하여 수혈과 헌혈을 혼동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헌혈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연구자들로서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부산시(1996)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헌혈시 에이즈의 감염 위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0%-80%로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헌혈 참여율을 고려해 볼때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응답자의 약 10%-30%는 에이즈 환자와 함께 목욕을 하거나 물컵이나 술잔을 같이 사용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혹은 모기에 물렸을 때 에이즈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어 지식 부족으로 인한 과잉 공포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영나(1990)의 연구에서 에이즈 환자와 수영이나 목욕을 같이 하면 에이즈에 걸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5%, 공공화장실 변기에서 에이즈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람이 70%인 김명남(1995)의 연구 결과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에이즈 환자와 손만 잡아도 에이즈 환자가 된다는 사람이 12.3%, 한집에 살기만 해도 에이즈에 전염된다는 사람이 27.5%나 되는 장순복(1994)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지만 (87.3%) 교육받을 기회나 이에 관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에이즈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10.2% 뿐이며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중매체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거나 관심 끌기에는 적합하지만, 매체가 가진 시간적 제한때문에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의 전달 기능은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정규교육 내용에 건강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에이즈에 관한 실질적이고 원리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교, 병원, 보건소,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에이즈 홍보 교육 자료를 비치하여 일반 대중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대부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1990)와 동방(198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즈에 걸렸다면 장순복(1994)의 연구 결과보다 훨씬 호의적이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비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Blendon & Donelan이 1988년에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에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약 18-39%를 보였는데 반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는 더 배타적인 경향을 보였다 (30.6%~85.6%). 황인선(1992)의 연구 결과에서는 교육전 검사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학교나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같이 교실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73.5%~85.9%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과반수가 에이즈 감염자를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이로니칼하게도 이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상영된 바있는 에이즈 환자의 인권투쟁을 다룬 영상매체가 대상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한편 장순복(1994)의 연구에서는 70%정도가 스스로 사직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대상자들은 에이즈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도 (77.2%)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8%). 이러한 결과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알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 비율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들 (김명남, 1995; 부산시, 1996; 장순복, 1994)을 보이는 것처럼 역시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이중잣대 그리고 차별의식이 만연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은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았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맥락이면서도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들은 에이즈에 관한 정보를 주로 TV나 신문을 통해서 얻었고, 약 90%의 학생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는 에이즈가 매

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비난적이었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면 동정적이였다.

치료법도 백신도 없는 현 상황에서 에이즈 만연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이다. 청소년들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에이즈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에이즈 홍보 교육 자료의 대중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국립보건원 (1995). 감염발생정보. 6(11), 104.
- 김명남 (1995). 일부지역 접대부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최신의학. 38(10), 112-120.
- 김영희 (1990). AIDS환자에 대한 간호학생의 지식과 태도조사 연구:경기지역 일개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2, 124-135.
- 대한에이즈협회 (1995. 8).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 대한의학협회 (1987). AIDS : 본체, 현황 및 대책. 서울: 예문각.
- 동방승희 (1988).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보건복지부 (1995. 6).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남행문화주식회사.
- 부산시(1996.1.3) 부산일보. 29면
- 신영희, 홍영혜 (간행중).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간호학회지
- 이영나 (1990). 부산 시내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임종권, 장동현, 최성욱, 김성권 (1990). 성병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서울:국립보건사회연구원.
- 장순복 (1994). 가임여성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 대한간호, 33(5), 46-62.
- 주인호 (1995. 10. 26). HIV/AIDS의 임상의학:일차진료 개원가에 필요한 WHO 진단기준. 의협신보. 12-13면.
- 전춘영외 (1988).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지식 조사 연구. 대한간호. 27(4), 75-87.



- 한국소비자연맹. 에이즈란 무엇인가 (AIDS).
- 홍영혜, 신영희 (1995). 부산지역 일부 간호전문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춘해간호전문대학 논문집. 7집
- 황인선 (1992). 에이즈 보건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 변화.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guilar, SM & Hardy, AM (Jan. 6, 1993).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for 1991: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dvance Data, Vital Health Statistics, No. 225.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yattsville, MD.
- Schoenborn, CA, Marsh, S, & Hardy, AM (Feb. 23, 1994).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for 1992: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Advance Data, Vital Health Statistics, No. 243.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Hyattsville, MD.
- American Red Cross (March, 1992). American Red Cross HIV/AIDS Instructor's Manual. American Red Cross.
- Blendon, R & Donelan, K (1988).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AIDS: The public's perspective. *New England J Med*, 319, 1022-1026.
- Carswell, J. W. (1988). Impact of AIDS in the developing world. *Br Med Bull*, 44(1) 183-202.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81) *Pneumocystis pneumonia*-Los Angeles. *MMWR*, 30, 250-252.
- Chin, J (1991). Present and future dimensions of the HIV/AIDS pandemic (abstract). In: V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IDS (Florence, Italy).
- Chin, J (1993). Public-health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HIV-1 and AIDS: Then and now. *J. NIH Res*. 5, 66-68.
- Dear, M. R. & Moore, J. B. (1994). Children's knowledge and affective response to AID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2), 65-72.
- Ehrhardt, A. A. (1992). Trends in sexual behavior and HIV pandemic. *AJPH*, 82(11), 1459-1461.
- Gee, G. (1993). Nurse Attitudes and AIDS. In: Dalgleish AG and Weiss RA (eds.). *AIDS and the new viruses*. Academic Press, London.
- Holtgrave, DR, et al. (1995). An Overview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HIV prevention program. *Public Health Report*. 110 (2) 134-146.
- Holtzman, D. et al (1991). Trends in HIV-related instruction and behavi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1989-1991. *PoD* 5018.
- Mann, J. M. (1992). AIDS-the second decade: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65, 245-250.
- McNicole, LB, Hadersbeck, RE, Dickens, DR, & Brown, JE (1991). AIDS and pregnancy: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self-identification of risk. *JOGNN*, 20(1), 65-72.
- Merson, MH. (1993). Slowing the spread of HIV: Agenda for the 1990s. *Science*, 260, 1266-1268.
- Piot, P. & Carael, M (1988). Epidemiological and sociological aspects of HIV-inf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r Med Bull*, 44(1), 68-88.
- Schwarz, MR (1989). Physicians' attitudes toward AIDS. In: DE Rogers & E. Ginzberg (Ed). *Cornell university Medical College Fifth Conference on Health Policy: Public and Professional attitudes toward AIDS patients*. Westview Press, Boulder.
- Walter, HJ & Vaugham, RD (1993). AIDS risk reduction among a multiethnic sample of urban high school students. *JAMA* 270, 725-730.
- World Health Organization Update (1991). AIDS cases reported. Geneva: Global Program on AIDS/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 The HIV/AIDS pandemic: 1993 Overview. (Document WHO/GPA/CNP/EVA/93.1). global program on AIDS.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5). AIDS-global data: The current global situation of the HIV/AIDS pandemic. 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70, 5-12.

#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Taegu and Kyungbook areas

Yeonghee Shin<sup>\*</sup>.Yong Hae Hong<sup>\*\*</sup>

Given the global impact of the AIDS pandemic, it is necessary to take every measure to prevent an epidemic of this disease in Korea. The only available strategy is prevention. Considering college students as a potential risk group, this study examined their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 AIDS. In this study,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67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Taegu and Kyungbook province area.

Findings indicated that most of the students had lacked knowledge about the AIDS. While knowledge about the modes of transmission and prevention improved, some respondents still believed that AIDS could be transmitted by sharing cups (17.4%), by coughing or sneezing(29.3%), and by mosquito (25.7%). About 10%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had received some instruction about AIDS, and 87.3% indicated a desire to know more about the disease. Most of the students reported that they obtained AIDS information from media devices such as TV and newspaper.

To the questions designed to examine attitude towards AIDS patients, the students showed a tendency to view AIDS patients as responsible for their own illness (85.6%). Interestingly, they showed sympathy to their imaginary friends and relatives suffering from AIDS (78.4%-90.2%). Eighty percent of the respondents felt that they personally were not at risk. The study findings suggest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IDS educational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

\* College of Nursing, Keimyng University

\*\* Choon Hae Junior College of Nursing